

당뇨병환자의 성기능 장애 실태



김 제 중

고려의대 비뇨기과 교수

당뇨병성 성기능 장애는 발기부전과 사정 장애가 대표적으로, 발기부전은 당뇨병환자의 50%에서 발생한다.

요즈음은 주위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마스크 등의 건강강좌 덕분에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 눈이 나빠지는 것,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 말초신경증으로 인해 주로 발이 저리거나 썩는 것이라는 정도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뇨교실이나 당뇨캠프에 다니는 환자들 중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해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성기능 장애가 왔어도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도 많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전반적인 당뇨병성 성기능 장애를 설명하여 당뇨병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

당뇨병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음경의 발기부전과 사정 장애가 대표적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당뇨병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며 정상인 보다 더 이른 나이에 발생할 수 있어 연령과는 무관하다. 또한 대부분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당뇨병의 말기에만 합

병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기간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발기부전이 당뇨병의 첫번째 증상인 경우도 있다.

당뇨병성 발기부전은 혈당이 잘 조절되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욕은 대부분 정상이지만 아예 발기가 안되는 경우로부터 발기시 음경의 딱딱한 정도가 떨어지고 발기 지속 시간이나 유지 능력이 감소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은 주로 신경병변과 혈관병변으로 인해 나타난다.

성기능 장애의 원인

당뇨병성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신경인성, 혈관인성, 해면체 평활근의 이상 같은 기질성과 심인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은 기질적인 것이다. 일반 발기부전환자에서 말초신경이나 자율신경의 병변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당뇨병성 발기부전환자에서도 말초신경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뇨병성 사정장애의 원인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지루증이나 사정불능을 일으킬 수 있다.

혈관의 변화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당뇨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산소 운반도 줄어들어 결국 미세혈관의 순환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 한편 굵은 혈관들에서는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이차적으로 발기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당뇨병성 발기부전이 동반된 환자에게 식생활 습관이나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또 다른 혈관성 병변의 위험인자가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정맥인성 발기부전은 해면체 망상구조의 탄성 섬유가 탄성을 잃어 망상구조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면 백막하에 있는 정맥을 압박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정맥으로 피가 흘러 나가게 되어 발기된 음경이 강직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당뇨병성 발기부전환자에서 약물을 주사하여 해면체 조영술을 시행해 보면 정맥누출 현상이 관찰된다. 당뇨병성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단일인자 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하여 성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것이 정신적인 원인이다.

거의 모든 당뇨병환자들은 장기간 투약이나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는 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중요한 심인성 성기능 장애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정력은 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물며 젊어서 외도를 많이 하면 일찍 죽는대거나 정액을 과다하게 사정하면 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신이나 부인이 ‘당뇨병환자가 성생활을 많이 하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당뇨병환자가 병이 있기 전 보다 성능력이 떨어지면 본인의 몸은 환자일만큼 잠자리에서나마 남성의 건재함을 확인시키

고자 노력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발기부전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기능은 더 저하되고, 이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깊어져 가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정신적인 부담감이나 전신 쇠약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도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원인들은 대부분 한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기능 장애 검사

당뇨병성 발기부전환자의 초기 검사는 성적, 심리학적, 내과적 병력과 신체 검사 및 혈당 검사를 비롯한 혈액 검사를 토대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당뇨병성 발기부전환자에서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기질적인 원인이 중요하고 이차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 검사에 이어서 선별적으로 동맥과 정맥에 대한 검사로 음경해면체내에 발기유발 약물을 주사한 후 발기유도 검사, 음경복합 초음파 검사, 음경해면체내압 측정술 및 해면체 조영술 및 음부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해면체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신경학적 검사로는 음경진동감각 검사, 수면중 야간 음경발기 검사, 음경배부신경체성 감각유발전위 검사 및 배부신경전도 검사와 구해면체반사, 자율신경계 검사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성기능 장애 치료 실태

일반적인 발기부전의 치료방법으로는 경구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 진공흡입기, 해면체내 발기유발제 자가주사요법, 음경보형물 삽입술, 미세혈관 수술 및 정신 치료와 성치료가 있다.

하지만 임상적인 효과면에서 정신 치료와 성치료는 보조적인 치료수단이고,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 치료는 효과가 떨어져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호르몬 치료는 내분비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인정되고 있고, 미세혈관 수술은 고령이거나 흡연자 및 당뇨병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뇨병성 발기부전환자의 치료에는 진공흡입기와 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 및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효과면에서 권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진공흡입기는 컵 모양의 진공실린더를 음경에 씌우고 진공펌프를 작동시키면 진공실린더 내에 빨아들이는 음압이 생겨 음경 내로 피가 빨려들어와 발기가 된다. 이때 음경 기저부에 압축밴드를 장착하여 빨려들어온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

진공압축기의 단점은 발기된 음경이 차갑고 감각이 떨어지며 30분 이상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음경의 동통, 점상출혈, 혈종 등이 생길 수 있고, 압축밴드 아래로는 힘이 없어 음경이 꺾이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좋은편인 진공흡입기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외국

사람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진공흡입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공흡입기를 사용할 때 발기유도 자체를 성행위의 전회과정의 한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파트너와 같이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정되고 있는 발기부전의 치료법이 발기유발제를 해면체 내로 주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혈관 활성화 물질로는 파파베린과 프로스타글란딘 E₁ 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발기를 유발시킨다. 이들 약물들은 단독으로 주사하거나, 펜톨라민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편이다.

당뇨병환자에서 혈관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고용량이 필요하므로 용량 결정 후 1주일에 2~3회 이내로 사용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드물지만 음경지속발기증이나 해면체내 섬유성 결절의 형성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발기유발제의 도입 이후 주춤해진 경향이 있으나 최후의 치료법으로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있다.

음경보형물은 초창기에 굴곡형이 개발된 이래 현재는 길이와 굵기까지 늘어나는 팽창형, 세조각 팽창형이 있다. 음경보형물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만큼 발기를 시킬 수 있으나 한번 시술하고 나면 자연적인 발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큰 단점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절정감이나 쾌감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또한 감염이나 기계적 고장 및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고 시술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기계적이거나 수술방법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합병증이 많이 감소되어 당뇨병환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정 장애는 젊은 환자에서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정 장애는 에페드린과 같은 교감신경계 약물이나 아미프라민 등의 항우울제를 투여하기도 하며 환자가 임신을 강력히 원할 때는 전기 자극에 의한 정자 채취도 가능하다.

맺음말

예전과 달리 음경발기의 발기생리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발기유발제나 음경보형물이 개발됨으로써 '당뇨병까지 있는데 성생활이 다 무엇이야' 하고 자포자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남성 발기부전의 병인과 진단 및 치료가 발전하게 되어 당뇨병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는 어렵지 않게 되었다.

성생활을 회복함으로써 당뇨병환자들도 다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당뇨병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당연히 당뇨병환자들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고개를 드십시오. **DAK**